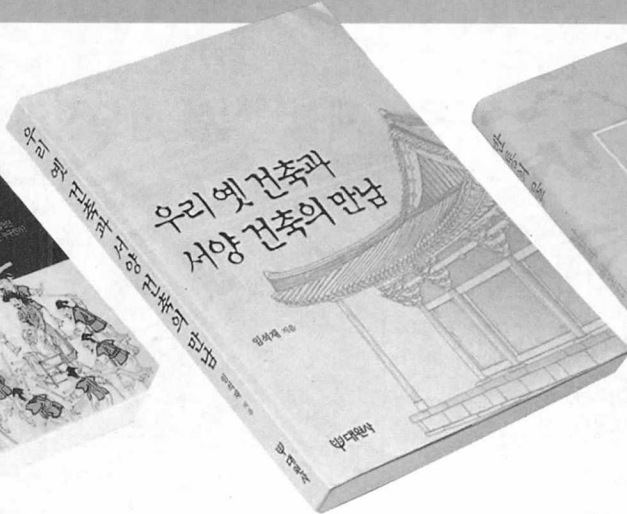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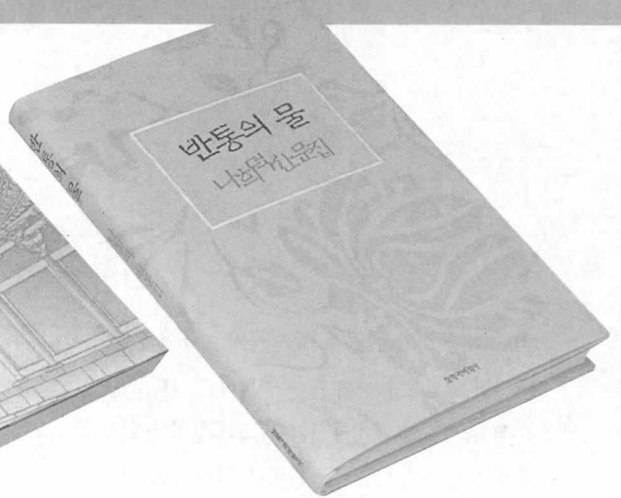




가람기획/A5신/354면/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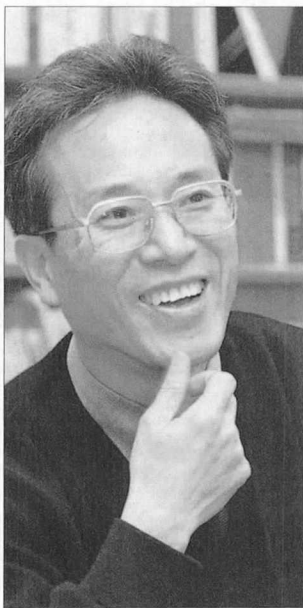


대원사/A5변형/384면/15,000원



창작과비평사/A5변형/222면/7500원

목숨 걸고 역사의 진실 기록한 사관



“바른 역사를 남기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탓에 김일손 등 수많은 사관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오늘날 ‘역사 바로 세우기’의 당위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펴낸 박홍갑씨

혹자는 역사를 승자가 남긴 기록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조선시대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사람들이 있다.

“조선의 사관들은 바른 역사를 남기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조선의 역사는 상당부분 왜곡됐거나 사멸됐을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홍갑씨(44)는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가람기획)를 통해 붓 한자루에 목숨을 걸었던 사관의 높은 지조를 칭송한다.

“바른 역사를 남기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탓에 김일손 등 수많은 사관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오늘날 ‘역사 바로 세우기’의 당

위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김일손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자라난 그는 85년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 4년 반 동안 《조선왕조실록》을 40개 항목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실록’은 사관들이 남긴 사초를 근거로 해 만든 만큼 그때 저는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셈이죠. 그때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눈 뜨게 됐습니다.”

이 책은 사관제도의 기원부터 사초의 의미, 사초와 실록, 그리고 굳은 의지와 충정으로 본분을 지킨 사관들의 태도 등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왕과 사관의 상관관계.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사관들과 절대 권력자 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칼날 위에서 있었다. 왕의 실정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사관들은 때때로 견디기 힘든 압력을 받아야 했다. 정치가 혼탁한 시절에는 그들이 남긴 사초가 문제가 돼 역사를 거스르는 참살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관들의 눈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학자의 눈도 마찬가지죠. 역사는 그들이 남긴 사료를 좀더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료조차 사라지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는 앞으로 사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생각이다. 바른 사관 한 명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토대기 때문이다.

— 오원진 기자

동서양 건축미학의 만남

부드러운 곡선미로 대변되는 한국 전통건축과 직선의 조형미로 특징 지워지는 서양건축. 흔히 대립적이라고 여겨지는 동서양의 건축미학



“우리의 옛 건축을 열등하게 보거나 지나치게 경외하는 편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동서양 건축의 장점을 합쳤을 때 우리의 조형환경이 좀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펴낸
임석재 교수

이 처음 한 자리에서 만났다.

임석재 교수(38, 이화여대 건축학과)가 펴낸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대원사)은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을 서양건축과 비교, 설명한 책이다.

“두 건축양식이 겹보기에는 이질적이지만 그 내면에는 비슷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임교수는 서양건축을 전공했지만, 우리 옛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대학시절부터 절이나 사원을 답사하면서 사진을 찍곤 했다. 그러다가 두 건축양식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을 지붕과 처마, 돌과 담 등 18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하고,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서양건축의 예를 들어 비교했다.

“한국 전통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성입니다. 자연을 건물에 맞추려 하지 않고, 건물이 자연에 맞춰 변형되지요.”

그는 돌 두 덩어리로 일주문을 대신한 개심사의 진입 공간을 자연성을 살린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픽처레스크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 이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픽처레스크 운동은 인간과 자연의 황폐

화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건축의 가치를 재발견한 일종의 건축운동이다.

“픽처레스크 운동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건축을 개량할 필요가 있는 열등한 대상으로 보거나 국수주의적으로 지나치게 경외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현대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동서양 건축의 장점들이 우리 조형환경에 적절히 녹아들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 김정은 기자

나무그늘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잡은 순간들



“요즘엔 시간의 의미를 많이 생각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학 역시 지나간 시간을 현재 속으로 끌어들이는 한 방법이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산문집 역시 그런 질문들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반통의 물》 펴낸
나희덕씨

‘순간들’ ‘나무들’ ‘사람들’ ‘질문들’ 등 매혹적인 소재를 가진 《반통의 물》(창작과비평사)을 펴내고 시인 나희덕씨(34)는 “책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씨는 “사람들이 책 내용은 말하지 않고 책만 이쁘다고 칭찬한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벚꽃처럼, 튀밥처럼 단숨에 터지는 웃음이라 얼른 시선을 붙잡았다.

“워낙 시골에서 자랐고 서울에 와서도 변두리

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레 자연친화적인 감수성이 생기게 된 거죠. 주제를 정해놓고 쓴 글들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순간들이 담겼어요. 존재론적인 순간들이죠.”

중요한 문장에 방점이 찍히듯, 영 잊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삶의 한 순간들이 이 산문집 안에 모였다. 이 책에 실린 프루스트의 말을 빌면, “시간의 연대기적 순서에서 해방된 1분간”과 같은 순간들일 테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씨는 그네를 타며 낮은 산들 저편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거나(《일몰 무렵》), 호수공원 건너편의 발을 매기 위해 물을 길어나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거나(《반통의 물》), 곧 떠나갈 집 뜰에다 2만5천원짜리 살구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산문집을 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늙은 게 아닌가? 삶이란 불투명한 것인데, 너무 이는 세계만을 말하느라 그 울타리 너머까지 보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벌써 그 순간들을 명료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골짜기마다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처럼 이 책에 실린 산문들은 제각기 다른 대상을 주제로 씌어졌다. 예컨대 실수한 순간이라든가, 탕자나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대지에 발을 디디고 천상의 황홀을 맛보려는 시인으로 상징되는 두 마리 새라든가. 서로 다른 물줄기를 타고 내려온 이 계곡물은 ‘대상을 바라보는 서늘한 시선’이라는 강물로 만난다. 이 산문집이 조금은 솔직해 보이고, 조금은 따뜻해 보이고, 조금은 냉철해 보이고, 조금은 유쾌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와 산문은 전혀 다른 길이죠. 산문은 계속 쓰려 해요. 시에 대한 산문. 인간의 외관에 대한 산문.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꾸준히 써나갈 예정이에요.”

이 산문집은 참 예쁘다. 화사한 장정만큼 좋은 글이 담긴 까맣다.

— 김연수 기자